한국자활복지개발원

Vol.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1년 10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저소득층 자활사업 대상자 특성 및 일 경험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Ⅰ. 들어가며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용의 경직화가 지속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와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거나, 구직이나 실업 상태에서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균등화 중위소득[1]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2019년 16.3%로 2011년 18.6% (통계청, 2021.8.9.) 지난 10여년 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과 2021년 1월 실업률이 5.7%까지 증가한 점은 현 사회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즉,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유급 노동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집단인 근로 빈곤층(노대명 외, 2016)의 고용과 소득 위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 중 일자리 지원정책으로써 자활사업이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 가능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은 2021년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가 조기 시행되고, 코로나 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의 자활참여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 빈곤층의 일자리 지원정책, 취업 촉진 정책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 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하며, 균등화 중위소득은 그 중간값을 지칭함.

한편, 현행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공존한다. 자활사업이 노동 가능 빈곤층에게도 공적 이전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제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장지연(2013)은 국가의 공적 소득이전 범주가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비록 시장소득의 분배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에서의 분배 악화는 덜 심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해식 외(2019)는 생계급여 수급 이력을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 수급한 이들은 20.1%이며 이중 과반수 이상은 소득 증가와 신규 취·창업에 의한 탈수급자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탈수급과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활사업에 대한 비판들도 있다. 김윤영(2021)은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자활사업단 일자리는 감소되고, 시장취업을 강화하면서 임금과 일자리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수진(2018)은 자활 근로사업이 기존 단순 노무 중심의 취로사업과 달리, 장기적 계획 하에 기술습득지원과 동시에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졌지만, 자활 근로 사업을 보면 치매노인 간병, 저소득층 주택의 점검·수선을 위한 집수리 도우미 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자원재활용 사업, 청소, 세탁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이중 간병과 집수리, 자원재활용, 청소 등은 2001년 이후에 5대 표준화 사업으로 채택되는데, 5대 표준화 사업은 자활사업 자체를 빠르게 확산시켰지만, 자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 경직성을 주었으며, 당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와 맞물려 영세한 규모와 적은 임금의 자활기업의 취약한 다수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활사업을 둘러싸고 평가와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정책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활사업은 단순히 빈곤층의 시장진입을 통한 소득증대의 목표를 가지는 동시에 빈곤층의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삶으로의 진입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정책적 목표도 품고 있다. 즉, 국민취업제도와 달리 단순히 고용창출만이 목적이 아닌 다차원적 빈곤 삶의 문제들을 감소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그렇다면, 자활사업이 20여년 된 현 시점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대상자 유입이 예측되는 가운데 자활사업이 근로 가능 빈곤층의 양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더 나은 삶으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모두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2016년-2020년까지의 자활정보시스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활 사업의 참여자 노동시장 참여 이력과 고용 관련 지원정책 경험, 일자리 수요,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진입 현황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경험하였던 노동시장 특징과 정책 욕구들을 파악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세밀한 자활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는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였고, 그밖에 추가 보완자료로써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용노동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이때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추출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활정보시스템 상 한해에 여러 차례 걸쳐 수급한 정보가 있는 참여자들은 중복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Base ID로 처리 분석하였다. 이때에 참여자들의 정보는 이중으로 기록되는데, 최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값인 첫 번째 진입 시점으로

노동 이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매년에 걸쳐 장기가 수급하고 있는 이들의 정보의 경우 각 년도마다 유입된 자활참여자로 처리하여 중복 없이 추출 분석하였다. 또한 초기면접을 통해 자활사례관리자가 사례 판정하여 사업참여로 결정된 CASE를 분석하였다.

Ⅱ.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제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①자활 준비형과 ②자립 도전형으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제공하는 함으로써, 개인별 자활모델 및 경로를 재 설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을 근로역량과 자근로 의욕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일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근로 의욕 측정과 관련해서는 연령, 근로능력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의 능력상태, 욕구상태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역량과 근로의지를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행정자료로써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입력된 기본면접기록지, 자활사정지가 누적된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근로역량은 자활 근로 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한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판단된 자활사업 대상자가 지역자활센터 내의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개인 근로 요건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자활사업 안내에 수록된 자활역량평가표에 따르면,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김태완 외, 2019:34) 자활사업을 근로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건강상태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탈수급과 탈빈곤이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자활역량은 건강상태만으로 그 참여자들을 유형화하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역량 진단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상 데이터를 고려하고, 참여자들이 자활프로그램에서 부과되는 직무,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자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근로 요건을 건강상태[2], 가구여건[3], 학력[4]으로 세분화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자활역량 수준을 살펴보았다.

2 자활역량평가표에 따르면, 양호를 건강상태에 양호한 사람, 보통을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 경증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중증 정신질환 이력자로 분류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활용하여 질병여부 = 0 & 신체적장애여부 = 0 & 정신건강질환여부 = 0 & 정신건강장애여부 = 0 인 자활참여자를 양호로 보았음. 보통은 신체적장애여부 = 0 & 정신건강장애여부 = 0 & 질병여부 = 1 & 정신건강질환여부 = 0 & @신체적건강상태=양호 또는 보통인 자활참여자를 보통으로 처리하였음 질병여부 = 1 or 신체적장애여부 = 1 or 정신건강질환여부 = 1 or 정신건강장애여부 = 1 or @신체적건강상태= 허약은 보통이하로 처리하였음.

3 취업장애요인은 가구원의 질병, 부생, 부양등으로 보육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채무과다 신용불량, 근로활동과 치료 통원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함. 취업장애요인이 없어 근로가 용의한 사람으로 상, 취업장애요인이 1가지 이상인 사람 중, 취업장애 요인이 3가지 이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을 하로 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활 참여시 애로사항을 취업장애요인으로 보고,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등) 여부,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등) 여부, 의료(질병, 신체장애로 인한 통원)여부 중 1개도 없으면 상, 1개이상이면 중, 3개모두 해당되면 하로 처리하였음.

4 학력의 경우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자립역량진단표에 기준을 따라, 대학 및 대학원교육 수준이면 제 4직능, ~고등, 기술교육수준이면 제 3직능, ~중등교육 수준이면 제2직능, ~초등교육 수준이면 제 1직능으로 처리하였음.

다음으로 근로 의욕은 근로 능력과 달리 열심히 일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후 근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주관적 의지와 태도와 관련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급자의 적극적 참여로 보고 있으며, 현재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역시 자활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근로유인이 부족하다고 주장되고 있다(이용표, 2002, 조준용, 2016, 조경식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센터 사례관리자가 참여자의 주관적 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 및 자원 등의 판단을 통해 도출된 근로의욕[5]을 한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을 주요한 두 축으로 두고, 자활사업 참여자를 유형화 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근로역량이 높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양호하고, 취업장애 요인이 없고, 학력수준이 제 3직능수준(~고등, 기술교육 수준)이상인 경우로 보았다. 근로역량이 낮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보통이거나 보통이하이고, 취업장애요인이 1개 이상 있으며, 학력수준이 제 2직능 수준 이하인 경우로 보았다. 근로의욕은 사례관리자의 판단에 입각하여 근로의욕이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두 축으로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5> 자활사업 참여자 유형화 분석 틀

구분	근로역량 높음=1	근로역량 낮음=0
근로의욕 있음 =10	A 집단: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C 집단: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근로의욕 없음 =0	B 집단: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D 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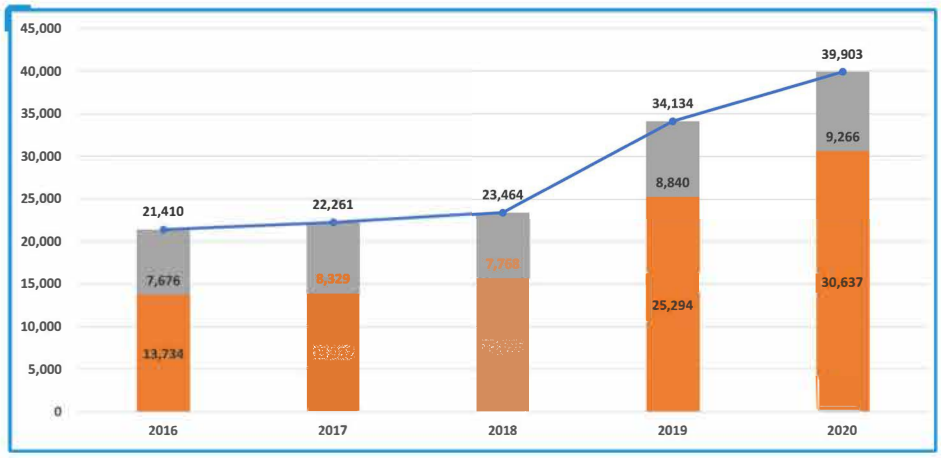
이 분류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모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활역량 관련 DATA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욕구 및 유형별 일자리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료로써 활용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역량, 근로 의욕을 고려한 참여자 유형별 일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5 자립역량진단표에 따르면, 근로의지는 상중하로 구성되어 있음. DATA상에는 상,중,하를 파악할수 있는 척도가 없어 자활참여시 애로사항에 근로의욕이 상실된 상태면 1, 아니면 0으로 하여 처리하였음.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39,76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규참여자 수는 30,552명으로 나타났고, 재참여자는 9,21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6년-2020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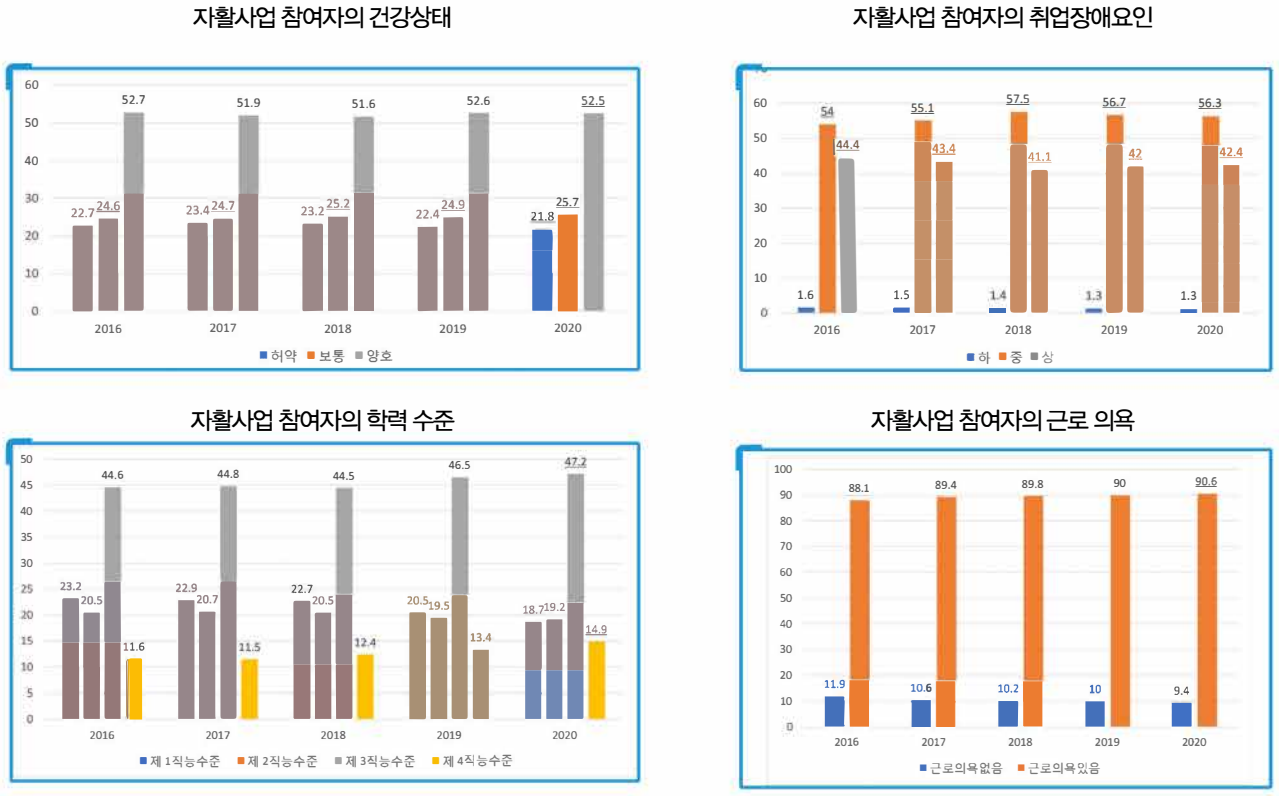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근로역량을 구성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 취업 장애요인, 학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 중 신체적 경질환도 없고,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참여자 비율이 52.5%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상태는 양호하나 신체적 경질환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25.7%, 그리고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환 혹은 장애를 가진 참여자 비율이 21.8%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별 참여자 분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장애요인을 살펴보면, 2020년 취업장애요인이 1개 정도 있는 참여자가 56.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장애요인이 1개도 없는 참여자비율이 42.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요인 추이를 보면, 해마다 취업장애요인이 없는 참여자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취업장애요인이 1개 정도 있는 참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제 4직능과 제 3직능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유한 참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제 4직능(대학 및 대학원교육 수준)의 학력을 보유한 참여자들은 14.9%로 약 3%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1직능 수준의 참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8.7%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근로의욕 있는 참여자 비율이 90.6%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하여 약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의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10% 내외로 나타났다.

[그림 2]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역량 및 근로의욕 구성요소 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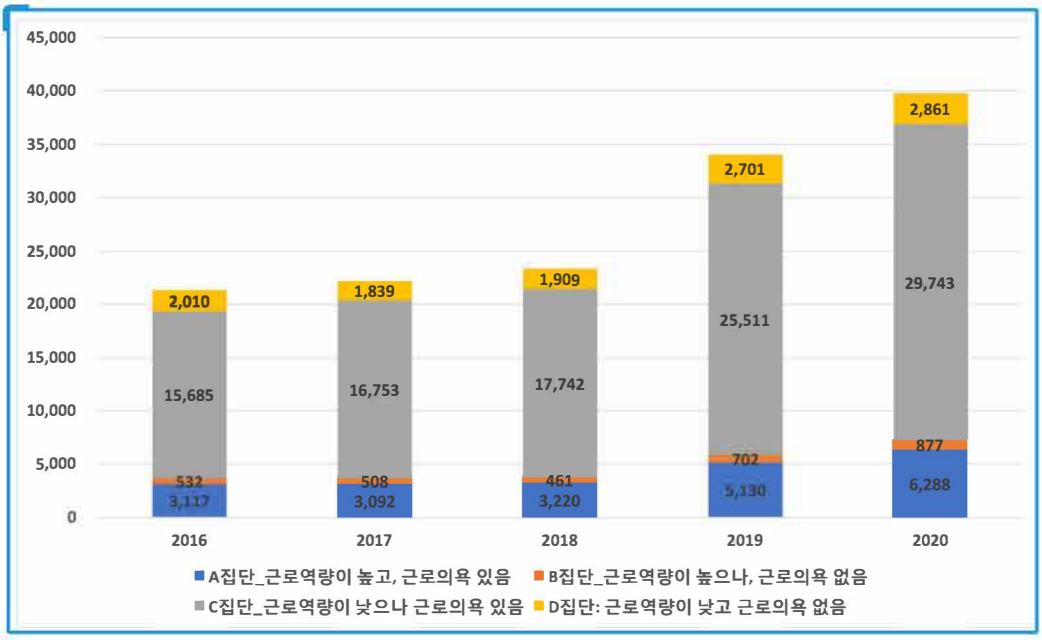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별 자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형을 분류하여 4개에 집단별 참여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있는 집단(A집단) 은 전체 참여자의 15.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비율은 2019년에 들어서 다소 증가하는 추이로 확인되었다. 이는 차상위자, 청년, 자활급여 특례자 등 근로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최근 다소 유입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근로역량은 다소 낮으나 근로의욕이 높은 집단(C 집단)이 74.8%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2018년 급증하였다가 2020년에 들어서 다소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단기성과를 보일수 있는 근로역량이 높은 참여자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D 집단)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2%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역량은 높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의 비율도 2% 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2016-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추이

(단위: %, 명)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표 5> 2016-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특성별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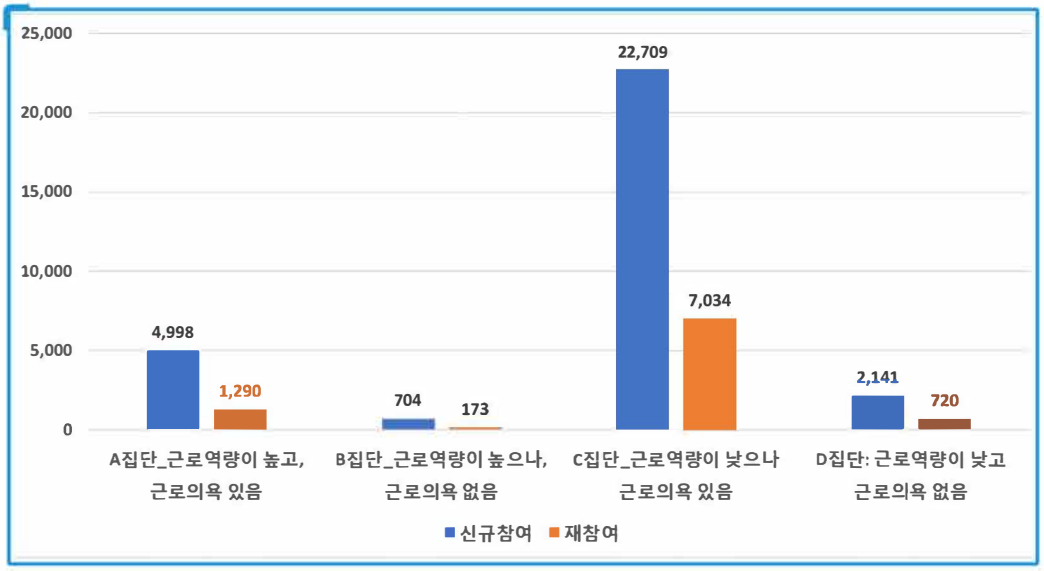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21,344	100	22,192	100	23,332	100	34,044	100	39,769	100
A집단 :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3,117	14.6	3,092	13.9	3,220	13.8	5,130	15.1	6,288	15.8
B집단 :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532	2.5	508	2.3	461	2	702	2.1	877	2.2
C집단 : 근로역량이 다소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15,685	73.5	16,753	75.5	17,742	76	25,511	74.9	29,743	74.8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2,010	9.4	1,839	8.3	1,909	8.2	2,701	7.9	2,861	7.2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2020년 기준 자활역량 특성별 신규참여자와 지속 참여자 수를 살펴 보면,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D 집단에서 재참여자 비율이 25.2%로 여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있는 A 집단과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B집단은 상대적으로 재참여자 비율이 각각 20.5%, 19.7%로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역량 특성별 신규참여자와 지속참여자 수

(단위: 명)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연령별 자활 역량 특성이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체 참여자 중 29세 미만은 9.1%, 30-39세는 7.3%, 40-49세는 18.3%, 50-59세는 34.7%, 60세 이상은 30.6% 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50대, 60세 이상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 의욕이 있는 A 집단에서 50대(28.5%), 29세미만(24.6%)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 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B 집단에서는 29세 미만(28.5%), 50대(25.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역량은 낮으나, 근로의욕이 있는 C 집단에서는 50대(36.0%), 60세이상(34.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역량이 낮고, 근로 의지도 낮은 집단에서는 50대(37.3), 60세이상(30.8%)로 나타났다.

<표 6>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 구성비율

(단위: %, 명)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3,627	9.1	2,917	7.3	7,270	18.3	13,805	34.7	12,150	30.6
A집단_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1,544	24.6	643	10.2	1,268	20.2	1,792	28.5	1,041	16.6
B집단_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250	28.5	94	10.7	185	21.1	227	25.9	121	13.8
C집단_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1,627	5.5	1,976	6.6	5,314	17.9	10,720	36	10,106	34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206	7.2	204	7.1	503	17.6	1,066	37.3	882	30.8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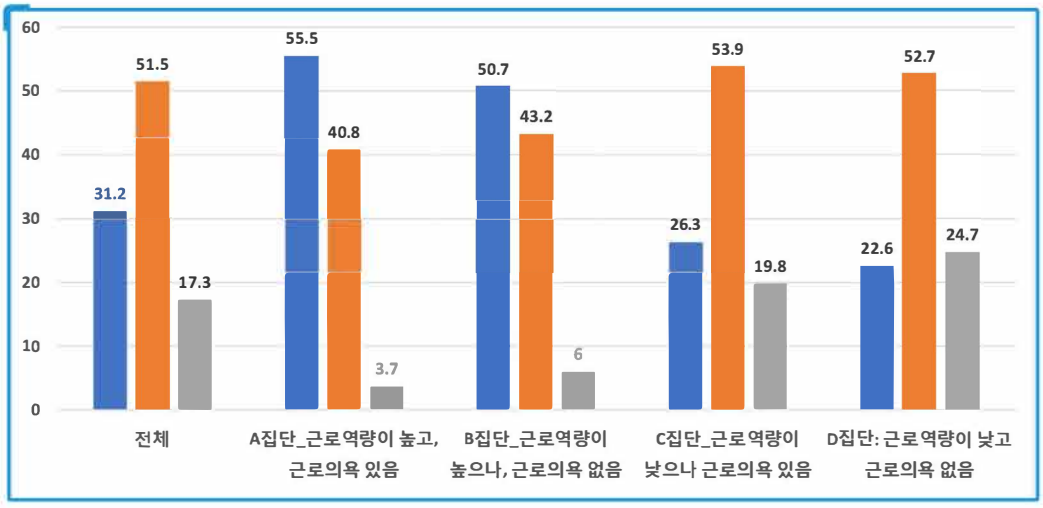
개인별 맞춤형 저소득 일자리 대안을 위해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세밀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활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활사업 노동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김태완 등(2019) 연구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자활역량 집단 내에 자활사업에서 부과되는 직무수행이 가능한 참여자의 비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활용하여 각 자활역량 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신체적 건강정도와 본인이 생각하는 정신적 건강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학적 평가를 반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노동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각 자활역량 집단별로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를 보면, A집단(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높은 참여자) 중 스스로가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나타났다.

B집단(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 중 스스로가 신체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7%, 보통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43.2%로 나타났다. C집단(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이 있는 참여자)중 스스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6.3%에 불과하였고, 19.8%가 허약하다고 응답하였다. D집단(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중 스스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2.6%였으며, 24.7%가 허약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 집단별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연령대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양호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대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보면, 전체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C집단(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이 있는 참여자)에서는 서 29세 미만, 30-39세와 같은 청년층에서는 자신의 신체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참여자의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49세, 50-59세, 60세 이상과 같은 중장년층에서는 자신의 신체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참여자의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별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구분		양호		보통		허약	
자활역량 집단	연령대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전체	12,369	31.2	20,399	51.5	6,853	17.3
	29세미만	2,044	56.5	1,378	38.1	194	5.4
	30-39세	1,333	45.8	1,292	44.4	284	9.8
	40-49세	2,499	34.5	3,668	50.6	1,081	14.9
	50-59세	3,481	25.3	7,433	54.1	2,833	20.6
	60세이상	3,012	24.9	6,628	54.8	2,461	20.3
A집단: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소계	3,490	55.5	2,566	40.8	230	3.7
	29세미만	1,046	67.8	472	30.6	25	1.6
	30-39세	405	63	217	33.7	21	3.3
	40-49세	702	55.4	518	40.9	47	3.7
	50-59세	834	46.5	862	48.1	96	5.4
	60세이상	503	48.3	497	47.7	4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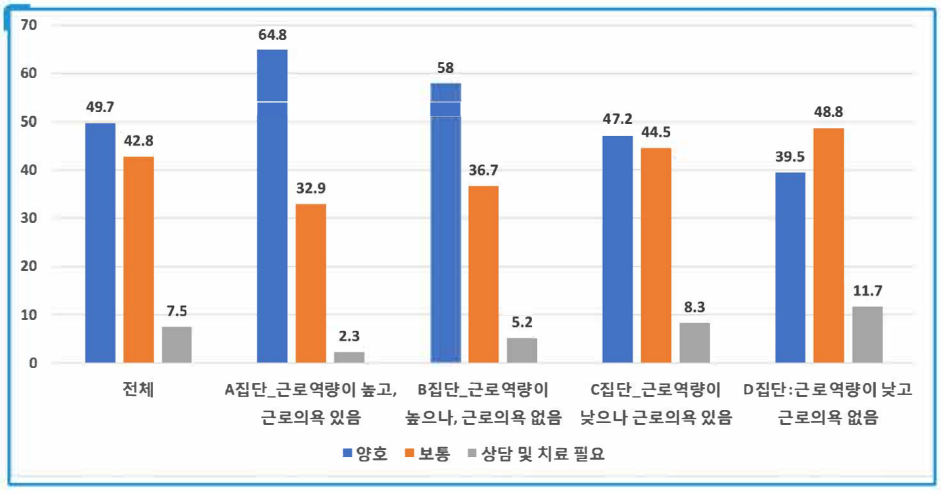
구분		양호		보통		허약	
자활역량 집단	연령대	빈도	%	빈도	%	빈도	%
B집단: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소계	445	50.7	379	43.2	53	6
	29세미만	154	61.6	84	33.6	12	4.8
	30-39세	46	48.9	43	45.7	5	5.3
	40-49세	90	48.6	89	48.1	6	3.2
	50-59세	94	41.4	111	48.9	22	9.7
	60세이상	61	50.4	52	43	8	6.6
C집단: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소계	7,791	26.3	15,956	53.9	5,866	19.8
	29세미만	765	47.3	723	44.7	131	8.1
	30-39세	799	40.6	939	47.7	231	11.7
	40-49세	1,601	30.2	2,782	52.5	914	17.3
	50-59세	2,364	22.2	5,904	55.3	2,399	22.5
	60세이상	2,262	22.5	5,608	55.7	2,191	21.8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소계	643	22.6	1,498	52.7	704	24.7
	29세미만	79	38.7	99	48.5	26	12.7
	30-39세	83	40.9	93	45.8	27	13.3
	40-49세	106	21.2	279	55.9	114	22.8
	50-59세	189	17.8	556	52.4	316	29.8
	60세이상	186	21.2	471	53.6	221	25.2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정신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나타났으며,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각 자활역량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들 (D집단) 중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있는 참여자들(A집단)과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들(B집단)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4.8%, 58.0%로 나타났다.

[그림]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 집단별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별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에서 허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제시 유예자의 기준인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진단이 되지 않아 조건제시 유예자가 되진 않았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그 경계성에 있는 빈곤 청장년층이 자활사업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근로역량에 있어서 낮지만, 근로의욕이 있는 C집단 중 29세 미만과 30대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가 상담 및 치료 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6%, 12.1%로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에서는 허약 비율이 높지 않고, 신체적 질환이 근로능력판정 기준을 통과한 수준의 경증질환임을 감안할 때 자활사업을 참여하여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자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에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있는 A집단은 주관적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 나타나 전체 참여자가 낮은 주관적 정신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B집단의 경우, 58%가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9세 미만에서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낮은 근로의욕이 정신건강상태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D집단의 경우 여타집단에 비해 주관적 정신건강이 허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21.2%가 상담 및 치료 필요로 응답하였다.

<표 7>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별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구분		양호		보통		상담및치료필요	
자활역량 집단	연령대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전체	19,680	49.7	16,950	42.8	2,977	7.5
	29세미만	2,137	59.1	1,210	33.5	266	7.4
	30-39세	1,486	51.1	1,104	38	319	11
	40-49세	3,554	49	3,009	41.5	684	9.4
	50-59세	6,461	47	6,251	45.5	1,028	7.5
	60세이상	6,042	49.9	5,376	44.4	680	5.6
A집단: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소계	4,075	64.8	2,068	32.9	142	2.3
	29세미만	1,098	71.2	413	26.8	31	2
	30-39세	420	65.3	196	30.5	27	4.2
	40-49세	810	63.9	428	33.8	30	2.4
	50-59세	1,091	60.9	662	37	38	2.1
	60세이상	656	63	369	35.4	16	1.5

구분		양호		보통		상담 및 치료 필요	
자활역량 집단	연령대	빈도	%	빈도	%	빈도	%
B집단: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소계	509	58	322	36.7	46	5.2
	29세미만	162	64.8	75	30	13	5.2
	30-39세	45	47.9	39	41.5	10	10.6
	40-49세	100	54.1	80	43.2	5	2.7
	50-59세	126	55.5	87	38.3	14	6.2
	60세이상	76	62.8	41	33.9	4	3.3
C집단: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소계	13,973	47.2	13,172	44.5	2,456	8.3
	29세미만	792	49	637	39.4	188	11.6
	30-39세	942	47.8	788	40	239	12.1
	40-49세	2,462	46.5	2,263	42.7	570	10.8
	50-59세	4,851	45.5	4,949	46.4	861	8.1
	60세이상	4,926	49	4,535	45.1	598	5.9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소계	1,123	39.5	1,388	48.8	333	11.7
	29세미만	85	41.7	85	41.7	34	16.7
	30-39세	79	38.9	81	39.9	43	21.2
	40-49세	182	36.5	238	47.7	79	15.8
	50-59세	393	37	553	52.1	115	10.8
	60세이상	384	43.8	431	49.1	62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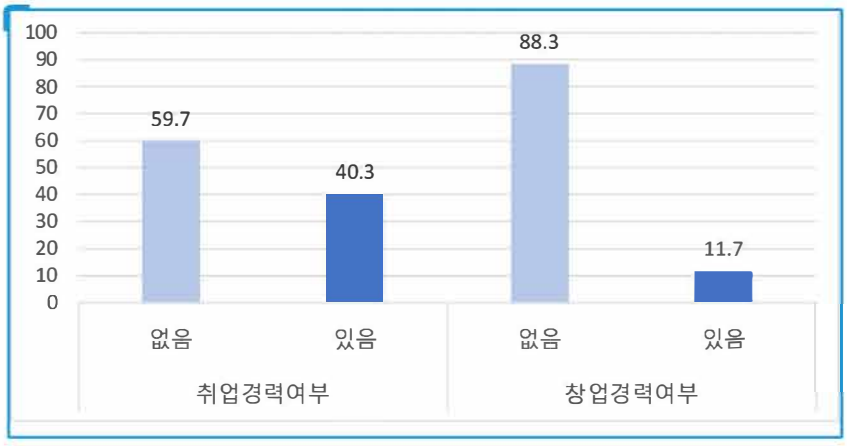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Ⅲ.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 경험과 희망 일자리

2020년 기준 취업경력이 있는 사람은 16,07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40.4%, 창업경력이 있는 사람은 11.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활역량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있는 참여자들(A집단) 중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36.9%로 나타났고, 창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 의욕이 없는 참여자들(B집단) 중 취업경력이 있는 집단은 29.8%로 나타났고, 창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이 있는 참여자들(C집단) 중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42%로 나타났고, 창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13.0%로 나타났다.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들(D집단) 중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34.6%, 창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10.5%로 나타났다.

[그림 2] 2020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 경력 여부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표 7> 2020년 자활역량 집단별 취·창업 경력 여부

(단위: 명, %)

	취업경력 없음		취업경력 있음		창업경력 없음		창업경력 있음	
	명	%	명	%	명	%	명	%
총계	23,695	59.6	16,074	40.4	35,090	88.2	4,679	11.8
A집단_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3,965	63.1	2,323	36.9	5,809	92.4	479	7.6
B집단_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616	70.2	261	29.8	836	95.3	41	4.7
C집단_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17,242	58	12,501	42	25,877	87	3,866	13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1,872	65.4	989	34.6	2,568	89.8	293	10.2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구체적으로 자활역량별, 연령별로 자활참여자들의 취업경험을 살펴보면 29세 미만이 취업경력이 없는 비율이 7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연령대에 비해 취업경력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집단의 취업경력 여부를 살펴보면, 30대가 43.8%로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40대(41.6%), 50대(4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B집단 역시 유사하게 30대, 40대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 집단의 경우 40대가 48.4%로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 집단 역시 40대가 40%로 취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020년 자활역량 집단별, 연령별 취업경력 여부

구분		취업경력 없음		취업경력 있음	
자활역량집단	연령대	빈도	%	빈도	%
전체	전체	23,695	59.6	16,074	40.4
	29세미만	2,549	70.3	1,078	29.7
	30-39세	1,599	54.8	1,318	45.2
	40-49세	3,907	53.7	3,363	46.3
	50-59세	7,939	57.5	5,866	42.5
	60세이상	7,701	63.4	4,449	36.6
A집단 :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소계	3,965	63.1	2,323	36.9
	29세미만	1,128	73.1	416	26.9
	30-39세	365	56.8	278	43.2
	40-49세	741	58.4	527	41.6
	50-59세	1,053	58.8	739	41.2
	60세이상	678	65.1	363	34.9
B집단_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소계	616	70.2	261	29.8
	29세미만	189	75.6	61	24.4
	30-39세	60	63.8	34	36.2
	40-49세	120	64.9	65	35.1
	50-59세	155	68.3	72	31.7
	60세이상	92	76	29	24
C집단_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소계	17,242	58	12,501	42
	29세미만	1,080	66.4	547	33.6
	30-39세	1,044	52.8	932	47.2
	40-49세	2,744	51.6	2,570	48.4
	50-59세	6,043	56.4	4,677	43.6
	60세이상	6,331	62.6	3,775	37.4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소계	1,872	65.4	989	34.6
	29세미만	152	73.8	54	26.2
	30-39세	130	63.7	74	36.3
	40-49세	302	60	201	40
	50-59세	688	64.5	378	35.5
	60세이상	600	68	282	32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구체적으로 자활역량별, 연령별로 자활참여자들의 창업경험을 살펴보면 50대, 60세 이상에서 창업경력이 각각 14.2%,15.7%로 나타났다. 자활역량 집단 모두에서 50대, 60세 이상에서 창업경력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경력이 자활역량별 각 집단들에서 속한 29세 미만과 30대가 창업경력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인 것이 확인 되었다.

<표 7> 2020년 자활역량 집단별 창업경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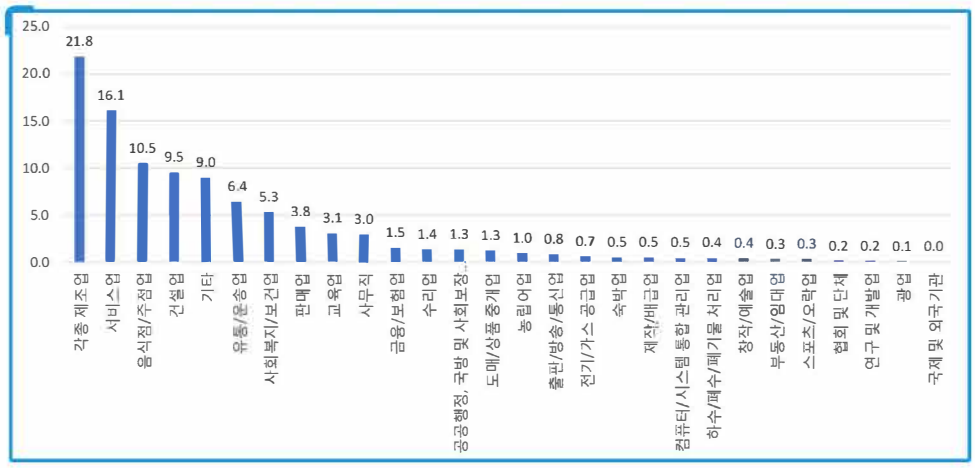
구분		창업경력 없음		창업경력 있음	
자활역량집단	연령대	빈도	%	빈도	%
전체	전체	35,090	88.2	4,679	11.8
	29세미만	3,611	99.6	16	0.4
	30-39세	2,794	95.8	123	4.2
	40-49세	6,591	90.7	679	9.3
	50-59세	11,850	85.8	1,955	14.2
	60세이상	10,244	84.3	1,906	15.7
A집단_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소계	5,809	92.4	479	7.6
	29세미만	1,541	99.8	3	0.2
	30-39세	618	96.1	25	3.9
	40-49세	1,184	93.4	84	6.6
	50-59세	1,591	88.8	201	11.2
	60세이상	875	84.1	166	15.9
B집단_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소계	836	95.3	41	4.7
	29세미만	250	100	0	0
	30-39세	94	100	0	0
	40-49세	177	95.7	8	4.3
	50-59세	213	93.8	14	6.2
	60세이상	102	84.3	19	15.7
C집단_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소계	25,877	87	3,866	13
	29세미만	1,614	99.2	13	0.8
	30-39세	1,881	95.2	95	4.8
	40-49세	4,778	89.9	536	10.1
	50-59세	9,106	84.9	1,614	15.1
	60세이상	8,498	84.1	1,608	15.9
D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소계	2,568	89.8	293	10.2
	29세미만	206	100	0	0
	30-39세	201	98.5	3	1.5
	40-49세	452	89.9	51	10.1
	50-59세	940	88.2	126	11.8
	60세이상	769	87.2	113	12.8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취업경험이 있는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산업[6]을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이 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16.1%, 음식점/주점업이 10.5%, 건설업이 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20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과거 취업 종사산업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표 8> 2020년 자활역량 집단별 과거 취업 종사산업

	전체		A집단_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B집단_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C집단_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D집단_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6,204	100.0	2,347	100.0	265	100.0	12,595	100.0	997	100.0
각종 제조업	3,537	21.8	532	22.7	72	27.2	2,726	21.6	207	20.8
건설업	1,545	9.5	130	5.5	11	4.2	1,274	10.1	130	1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3	1.3	33	1.4	1	0.4	166	1.3	13	1.3
광업	17	0.1	0	0.0	1	0.4	15	0.1	1	0.1
교육업	501	3.1	127	5.4	14	5.3	345	2.7	15	1.5
국제 및 외국기관	7	0.0	3	0.1	0	0.0	4	0.0	0	0.0
금융/보험업	250	1.5	38	1.6	4	1.5	196	1.6	12	1.2
농립어업	157	1.0	13	0.6	0	0.0	136	1.1	8	0.8
도매/상품 중개업	204	1.3	34	1.4	3	1.1	154	1.2	13	1.3
부동산/임대업	56	0.3	9	0.4	1	0.4	45	0.4	1	0.1
사회복지/보건업	865	5.3	143	6.1	12	4.5	661	5.2	49	4.9
서비스업	2,612	16.1	409	17.4	50	18.9	2,006	15.9	147	14.7
수리업	219	1.4	29	1.2	4	1.5	171	1.4	15	1.5
숙박업	78	0.5	8	0.3	2	0.8	65	0.5	3	0.3
스포츠/오락업	53	0.3	9	0.4	2	0.8	39	0.3	3	0.3
연구 및 개발업	26	0.2	7	0.3	1	0.4	17	0.1	1	0.1
유통/운송업	1,041	6.4	121	5.2	11	4.2	835	6.6	74	7.4

6 취·창업업종과 종사상 지위는 중복 응답 처리하였음.

	전체		A집단_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B집단_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C집단_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D집단_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음식점/주점업	1,707	10.5	208	8.9	15	5.7	1379	10.9	105	10.5
전기/가스 공급업	106	0.7	15	0.6	2	0.8	79	0.6	10	1.0
제작/배급업	78	0.5	9	0.4	2	0.8	63	0.5	4	0.4
창작/예술업	67	0.4	15	0.6	4	1.5	40	0.3	8	0.8
출판/방송/통신업	135	0.8	23	1.0	2	0.8	104	0.8	6	0.6
컴퓨터/시스템 통합 관리업	73	0.5	14	0.6	1	0.4	57	0.5	1	0.1
판매업	611	3.8	108	4.6	10	3.8	456	3.6	37	3.7
하수/폐수/폐기물 처리업	72	0.4	11	0.5	0	0.0	52	0.4	9	0.9
협회 및 단체	29	0.2	7	0.3	0	0.0	21	0.2	1	0.1
사무직	485	3.0	112	4.8	16	6.0	326	2.6	31	3.1
기타	1,460	9.0	180	7.7	24	9.1	1163	9.2	9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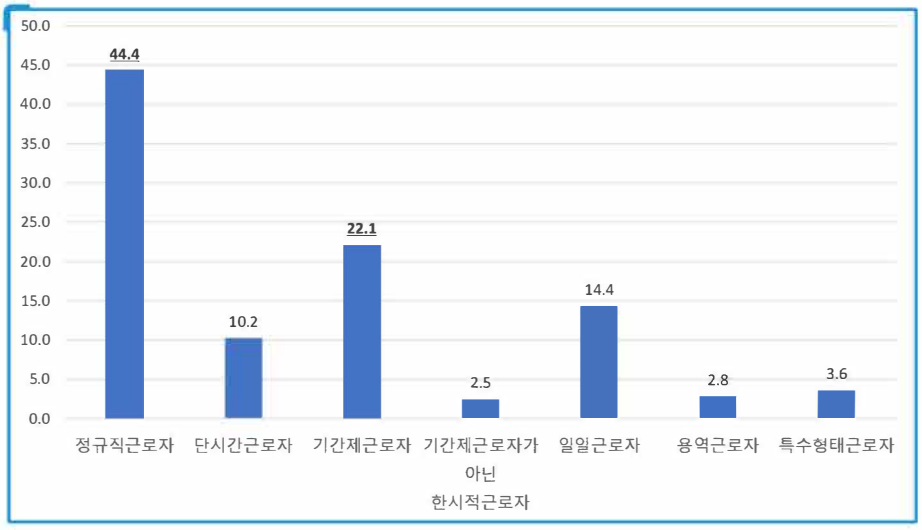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취업경험이 있는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이었던 비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일일근로자와 단기간근로자 경험한 비율이 각각 10.2%, 14.4%로 나타났다.

자활역량별로 살펴보면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역량이 없는 D집단에서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중 57.9%가 비정규직 근로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이 있는 C집단에서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중 55.6%가 비정규직 근로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A집단과 B집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이었던 비율은 55.1%, 54.0%로 나타났다.

[그림 4]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과거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표 9> 2020년 자활역량 집단별 과거 취업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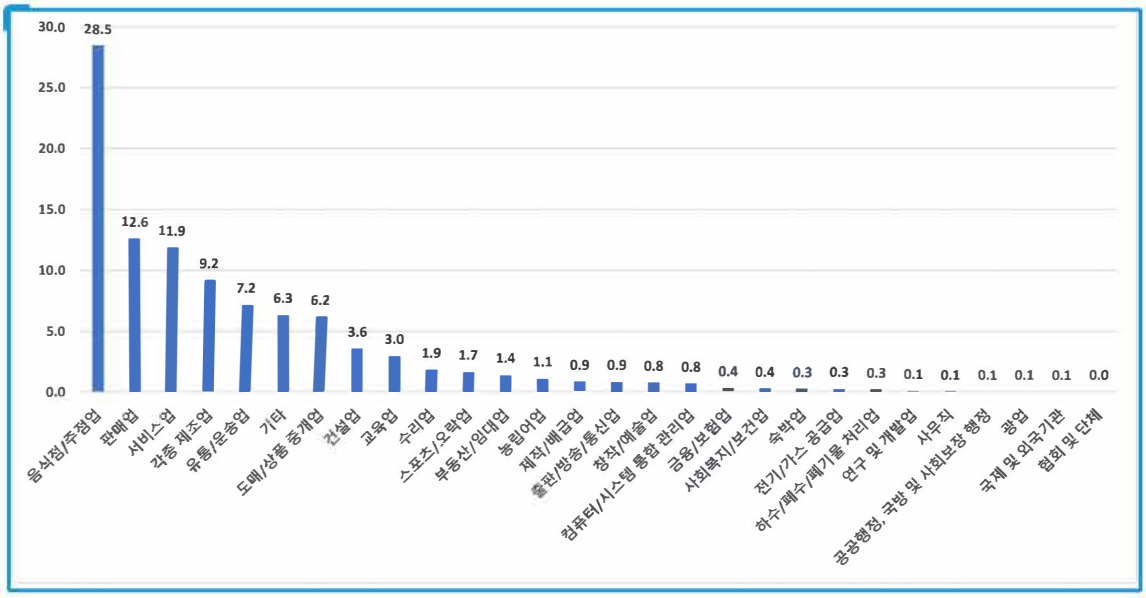
	전체		A집단_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B집단_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C집단_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D집단_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5,934	100	2,309	100	263	100	12,368	100	994	100
정규직 근로자	7,067	44.4	1,037	44.9	121	46.0	5,491	44.4	418	42.1
단시간 근로자	1,633	10.2	279	12.1	41	15.6	1,215	9.8	98	9.9
기간제 근로자	3,517	22.1	589	25.5	58	22.1	2,671	21.6	199	20.0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392	2.5	70	3.0	8	3.0	288	2.3	26	2.6
일일 근로자	2,290	14.4	221	9.6	18	6.8	1,864	15.1	187	18.8
용역 근로자	454	2.8	43	1.9	7	2.7	368	3.0	36	3.6
특수형태근로자	581	3.6	70	3.0	10	3.8	471	3.8	30	3.0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창업을 경험한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창업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주점업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매업(12.6%), 서비스업(11.9%), 각종 제조업(9.2%), 유통/운송업(7.2%), 도매/상품 중개업(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과거 창업업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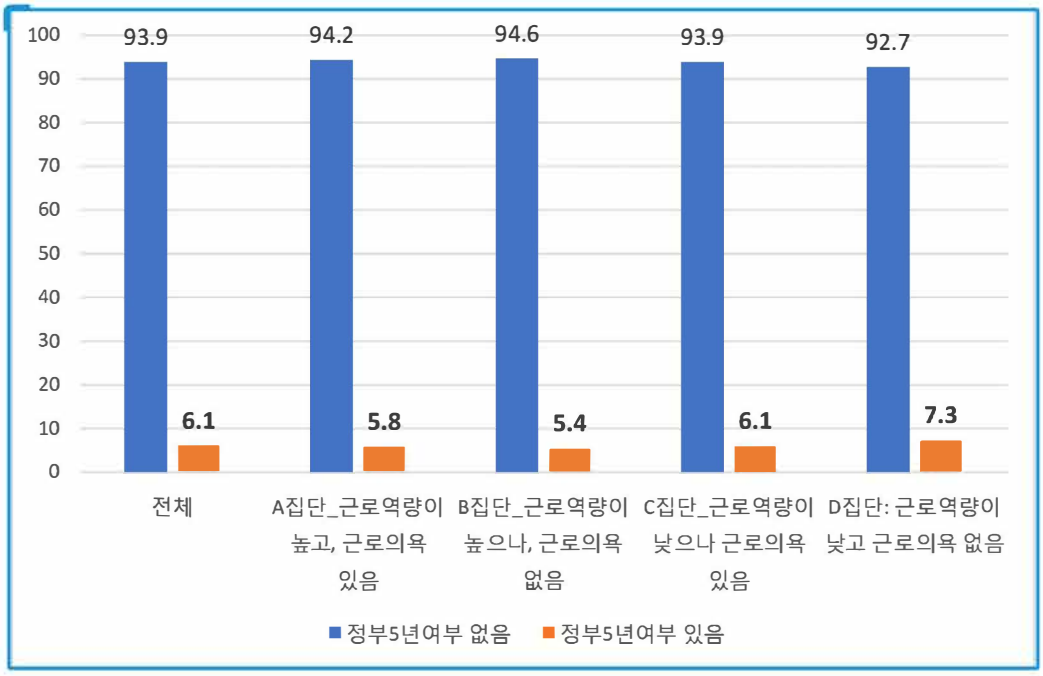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일 경험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일자리(지자체, 중앙지원 모두 포함, 자활사업제외)사업 참여한 경우는 전체 참여자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역량 집단별로 살펴보면, D집단(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없는 참여자 집단)의 경우 여타 그룹에 비해 정부 일자리를 경험한 참여자가 7.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근로역량과 낮은 근로의욕을 보이는 참여자들이 공공근로 경험 이후 자활사업으로 진입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0년 기준 최근 5년 이내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참여자에 6.0%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역량 집단별로 살펴보면, 앞서 정부 일자리(지자체, 중앙지원 모두 포함, 자활사업제외)사업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A집단(근로 역량이 높고, 근로 의욕이 높은 참여자 집단)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직업훈련 경험을 한 참여자 비율이 8.5%로 여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2020년 기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최근 5년 직업훈련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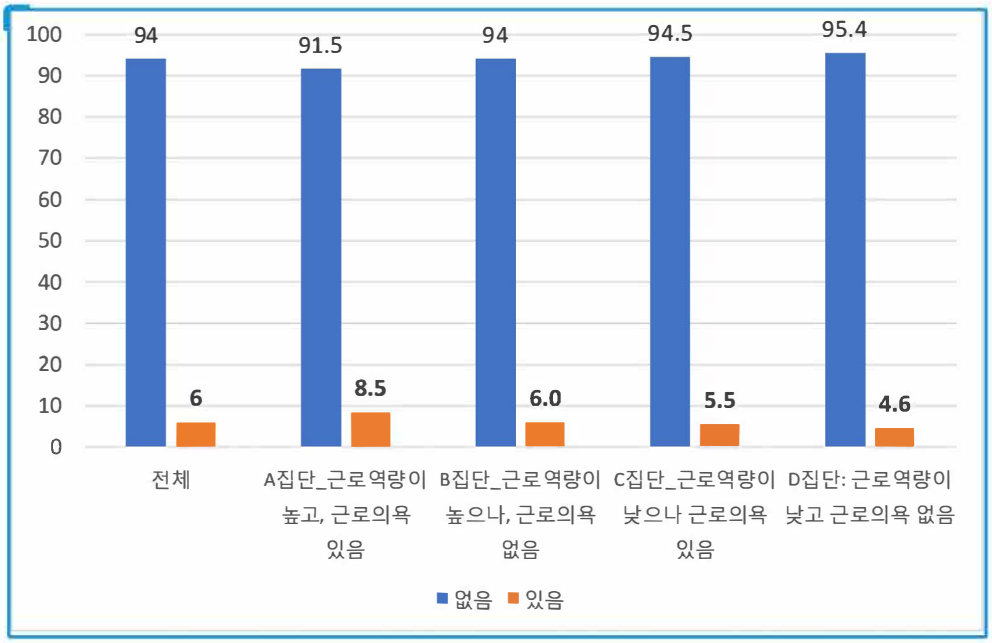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그림 6] 2020년 기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최근 5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자활참여자들의 희망업종 중 상위 10개 업종(기타제외)을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이 24.1%, 서비스업이 22.4%, 기타 11.9%, 사회복지/보건업 7.2%, 음식/주점업 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A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의 경우, 서비스업(23.5%)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로 나타난 반면,나머지 그룹에 속한 참여자들의 경우, 각종 제조업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희망일자리

	전체		A집단_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B집단_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C집단_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D집단_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각종 제조업	9,594	24.1	1,287	20.5	228	26	7,319	24.6	760	26.6
서비스업	8,892	22.4	1,498	23.8	203	23.1	6,637	22.3	554	19.4
기타	4,748	11.9	631	10	102	11.6	3,528	11.9	487	17
사회복지/보건업	2,868	7.2	585	9.3	72	8.2	2,044	6.9	167	5.8
음식점/주점업	2,817	7.1	401	6.4	39	4.4	2,215	7.4	162	5.7
유통/운송업	2,172	5.5	245	3.9	30	3.4	1,746	5.9	151	5.3
건설업	1,563	3.9	185	2.9	21	2.4	1,227	4.1	130	4.5
사무직	1,551	3.9	430	6.8	71	8.1	961	3.2	89	3.1
농림어업	1,408	3.5	122	1.9	12	1.4	1,178	4	96	3.4
판매업	828	2.1	151	2.4	14	1.6	610	2.1	53	1.9
교육업	542	1.4	139	2.2	19	2.2	360	1.2	24	0.8

원자료: 2016-2020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Ⅳ.소결

자활사업은 근로 빈곤층의 적극적 사회·고용 안전망으로써, 빈곤층 및 취약 계층 포용 기능 강화와 함께 근로를 통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려고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활 대상별 특화된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비대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저기술, 저숙련, 저임금 노동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요의 감소 속에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절대 빈곤층에만 집중하는 정책으로써 기능 뿐 만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과 불안정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반복하는 근로 빈곤층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개인별 자활모델 구축을 위한 대상별 특화된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제안하기 전에 기존의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DATA를 활용하여 현재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를 바탕으로 자활역량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구주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검토하고, 자활참여자들의 유형별 일 경험과 현재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활역량, 주관적 신체,정신 건강상태, 일경험, 희망 일자리를 검토한 결과 각 자활역량 집단별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일 경험은 부족하지만, 주관적 신체, 정신건강 상태도 양호한 청년층 A 그룹(근로역량과 근로의지가 높은 참여자 집단)이다. 이들은 취업경험이 부족하고, 창업경험은 없으며, 정부 공공일자리 경험이 적은 특징을 보였다. 이 집단은 서비스나 사무직, 사회복지 관련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국민취업제도로의 연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거나 신 산업과 관련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구축하여 안정적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 경험이 많고 근로역량이 높은, 주관적 신체, 정신건강 상태도 양호한 중년층(40,50대) A 그룹(근로역량과 근로의지가 높은 참여자 집단)이다. 이들은 평균 취 창업 경력기간도 길고, 창업경험이 있으며 정부 공공일자리 경험이 있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 의지가 높고, 신체적, 정신 건강이 양호 집단이다 이 집단은 판매직이나 제조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현장에서 역량 있는 자활 참여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확인된다.

셋째, 근로역량은 높거나 보통이고,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근로 의지가 낮고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미약한 청년층 B그룹, C그룹이다. 이들은 일 경험 기간이 없거나 짧고, 정부 공공일자리 경험도 적으며, 근로 의지가 낮고,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경우 청년자립도전단 사업을 활용하여,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인적인 의지 부여, 지속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당장 진입시키려는 프로그램 보다는 적합한 일 경험과 근로 의지를 쌓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 경험은 많으나, 근로 능력평가에는 드러나지 않은 신체적 및 정신적 경질환 등으로 근로역량 이나 근로의지가 다소 낮은 장년층 B,C그룹이다. 이들은 취업과 창업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 주변부 일자리에서의 경험이 있었던 특징을 가진다. 또한 현재에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기엔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자활사업에서의 현 근로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업단 참여를 통해 그들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근로역량도 낮고, 근로의지도 낮은 D그룹이다.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참여자의 7.2% 이다. 이 집단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서 부과하는 자활근로가 가능한 참여자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활동능력 평가 기준이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시군구에서 다각적 근로능력 판단과 사례판정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참여자들인지 파악하고, 조건부과가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완 외(2019). 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외(2016). 근로빈곤층 근로연계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표(2002).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방향: 근로의욕 고취와 정신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3-105.

조경식(2020).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활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3), 89-117.

조준용(2016).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대한 연구: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른 방법론적 융합.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19-29.